

# 수능 끝난 수험생 위한 교회의 역할은?

말씀의 초대 | 빌 3:12-16

## 이정표 말고 나침반 보고



류제곤 목사  
한덕재교회  
서신지방회장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기 전에는 이정표를 보며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정표는 가는 방향과정을 안내하는 표지판이기에 백 퍼센트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이정표를 잘못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이 생기면 이정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오로지 한 방향이듯이 꽃대도 결실전이나 정상에 단 한 개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이정표가 아닌 나침반(꽃대를 보고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전도자로 잡힌 바 된(12절)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믿음의 경주자로 비유하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꽃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했습니다(14절).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 바깥 부는 대로 발걸음 가는 대로 달려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며 갈 꽃대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히 12:1-2).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꽃대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믿음의 여정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밭시받는 것은 일상이었으며, 굶주리기도 했고, 부욕되기도 했고 매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꽃대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본분을 통해 꽃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렸노라며 자만하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13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기대하며 달

려가되(14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변함없이 달려가라(16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성장학의 대가 미국의 '맥스웰(John Maxwell)' 목사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단순한데,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비결이 명확한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만 보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입니다(고전 10:31). 그러한 목적을 가졌다면 이정표가 아닌 나침반(꽃대)을 보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길에서는 이정표가 유용하지만 모래바람으로 지형변화가 심한 사막에서는 이정표만 믿고 가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이정표보다 오히려 한 방향만 가리키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바 있습니다. 거리 두기, 인원 제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가림막 설치. 이런 코로나 이정표는 효율이 집합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랬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못어널 수도 있었지만 심각한 결과는 분명 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 세워진 이정표를 보고 온 결과는 다수의 미자립교회가 폐쇄되는 아픔이 있었는가 하면, 전통적 예배 관이 흔들리면서 편리한 온라인 예배, 온라인 헌금이 정착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는 종요되었지만 그때 세워졌던 이정표의 존재는 아직도 교회 공동체 주변에 남아 있어 믿음의 경주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공적 예배 개념은 희미해졌고, 영성을 지켜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금요 기도회도 간소화되어 가는가 하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행위가 멀어지면서 중, 대형교회 교인 숫자가 급감한 반면 50명 이하 소형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이정표를 보지 말고 오히려 한 방향만 가리키는 나침반을 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바랍니다.



## 가족과 교회 협력해 함께 돌봐야

수능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온 수험생들은 시험 이후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찾아오는 허무함에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기 쉽다. 그동안 억누르고 참아온 시간에 더해 갑작스레 찾아온 자유는 그들을 방향과 일탈의 길로 끌고 가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 신앙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교회뿐만 아니라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마음과 신앙을 바로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매년 이맘때면 극단적 선택을 한 수험생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는 "수능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수험생들은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평생의 기대가 깨지는 듯한 큰 충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인생의 첫 큰 시련을 마주하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이때, 부모들이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길 당부했다. 또한 결과에 따라 좌절하고 낙담한 학생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의 자세를 강조했다.

수능을 치른 학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책임감, 어른이 됐다는 흥분감 등 복합적인 심리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시기 '일시적 자유'에 노출된 고3들을 이단들이 노린다.

구리이단상담소 상담사 김강림 목사는 "실제로 신천지 탈퇴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 두 명 중 한 명은 수능 이후 3개월 사이에 포교 당한 경우였다"라며 "교회는 특집성이 강한 학생, 부모에게서 떨어져 자취하려는 학생 등 이성적 판단에 취약한 이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주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 시험 끝난 수험생 교회가 나서서 품는다! 마지막 청소년 시기 교회의 지속적 돌봄 중요

2026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 지났다. 오랜 시간 앞만 보고 달려온 어린 이들을 위해 기독교 단체와 교회는 수험생들을 품고 신앙과 삶의 전환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스텐드그라운드'는 전국에 비스무살을 대상으로 '스물셋기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매일 온라인 말씀 묵상과 나눔을 진행하고, 주 2회 온라인 예배와 강의를 제공하며 학생신앙운동 SFC 경남마창지부는 '안녕, 나의 스무살' 프로젝트를 통해 고3 학생들을 위한 4주간의 집중 프로그램을 20일 시작했다. 성경적 연애, 직업관, 대학생활, 이단 문제 등 성인이 되기 전 필요한 주제들로 구성돼 있다.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며 실제 대학 SFC 모인 참여와 대학 탐방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서울지구는 오는 27일 신길교회에서 고

3 초청 채플을 연다. 대학 축제 콘서트로 진행되며, 미니게임·먹거리·전시 부스·박람회 등을 운영한다. 특히 이미 수시로 합격학 서울 지역 대학 선배들과의 연결도 이뤄져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는 매년 고3 학생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기도회, 졸업여행 등을 진행한다.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신앙훈련과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는 취지다.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 청년부는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사역'을 진행한다. 수능 직후부터 청년부 리더들과 고3 학생들이 팀을 이뤄 예배 후 식사 교제, MI 등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교제의 장을 넓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회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2025 홀리위크' 오는 12월 2일 시티미션교회서

'God-vernment' 주제로 정치 영역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대표 최상일 목사, 이하 서기청)가 주관하는 2025 홀리위크(Holy Week)가 "God-vernment" 위정자들에게 복음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라는 주제로 오는 12월2-5일 까지 시티미션교회(이규 목사)에서 진행된다.

이번 홀리위크는 지난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이 시작됐던 12월 첫째 주에 맞춰 정치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대

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한다.

12월 2일 오후 4시 목회자 기도회로 시작하여 12월 3-4일 저녁 7시 집회, 12월 5일 저녁 9시에서 익일 새벽 4시까지 7시간 연속 철야 기도회로 이어진다. 워십퍼스 부브먼트 등이 찬양을 인도하고 청년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해 온 목회자들이 말씀 선포 및 기도 인도에 나선다. 올해는 정치 영역을 위한 기도회인 만큼

국회 보좌진 신우회를 섬기고 있는 전·현직 신우회장들도 중보기도자로 동참한다.

이번 홀리위크의 기도인도로 섬기는 조대연 목사(은현성결교회)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번 홀리위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신앙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고 다음세대에 잘 전수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김다은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예배하며 교제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방황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교회 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필요하다"며 함께 모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홀리위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대상으로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HolyWeek.kr)

# 21C성결선교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대표회장 박기홍 목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1C성결선교회가 예성교단의 목회자 영성 훈련과 개 교회 부흥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 왔음을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오니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25. 12. 12.(금) 오전 11시
- 장 소 : 마벨리에 시흥점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01, 홈플러스 7층
- 일정  
1부 - 예배  
2부 - 정기총회  
3부 - 송년회 및 식사

### 21C성결선교회 2025년도 조직표

- 고 문 : 조병창 송재석 김소암 위광필 이성주 백병도 윤종관 이윤구 송덕준 나세용 윤기순 왕영신 김승경 진순천 노희석
- 자문위원 : 김순갑 김승현 김용우 노윤경 박종학 이기문 이원광 임병철 최용훈 허성환 김금윤 박익배 김윤석 문정민 이우영 신현파
- 대표회장 : 박기홍
- 상임회장 : 김종열 강호철 조일구 김민수 노윤식 김장경 송용현 김병천 안정선 박광일
- 공동회장 : 소규혁 강완수 광종원 김규식 김규원 김은규 김석형 김완구 김양중 김진현 김중준 김정규 김주원 박기영 박종복 신진호 신성균 심중보 양준기 유광선 이광현 이영구 이명화 이우현 이상수 이승용 이석민 이상남 이정길 이재국 이종만 임병호 유선호 윤맹석 오정훈 왕영중 정기남 정기복 정창영 조기현 조남영 전은희 조현우 조홍영 최귀수 표안식 표성인 한의상
- 상임부회장 : 이정소
- 부 회 장 : 강대일 강성범 김덕정 김민섭 김성은 김수찬 김준수 김중성 김현기 남기형 문재영 박광수 신진재 이정섭 이규명 이성근 이상재 이창영 이창원 위성섭 윤창원 안현자 윤덕남 장광우 정세용 정진용 차임순 최순원
- 사무총장 : 이두성
- 상임총무 : 김요엘 김용진 박종대 백은구 이종화 윤성철 송민우 송중삼
- 협동총무 : 김지연 김기용 남형규 배영준 안영근 안영주 유미애 이상진 전병두 편승현 형광우
- 서 기 : 이규현 부서기 : 송영만 회 계 : 김정호 부회계 : 구자신
- 감 사 : 이광현 임병호
- 분 과 : 선 교 : 허상범 교 육 : 강원수 부 흘 : 윤맹석 신 학 : 이석민
- 복 지 : 이상수 상 담 : 남기형 기 획 : 김주원 미디어 : 박종대

21C성결선교회 대표회장 박기홍 목사 | 사무총장 이두성 목사(010-8800-8302)